

‘나주-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 추진...초광역 협력사업

경전선·광주지하철 연계한 광역철도

총 길이 45km 사업비 1조8917억 원

전남도가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나주부터 광주를 거쳐 화순까지 경전선과 광주지하철을 연계한 광역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계획 중인 광역철도 건설의 사업규모는 총 45km로 사업이 확정되면 1조89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광주에서 나주 구간은 광주 상무역과 서광주, 나주 남평역, 나주혁신도시, 나주역, 동신대, 광주 평동역까지 32.6km로 1조3692억원

을 투입한다.

광주에서 화순 구간은 광주 소태역과 화순읍, 화순전남대병원을 연결할 12.4km로 522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나주시와 화순군의 의견을 모아 노선대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광주전남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철도 전문가를 포함한 12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가계획 반영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역철도에는 국비 70%가 지원되고, 지방

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경계로 나눠 해당 지자체가 각각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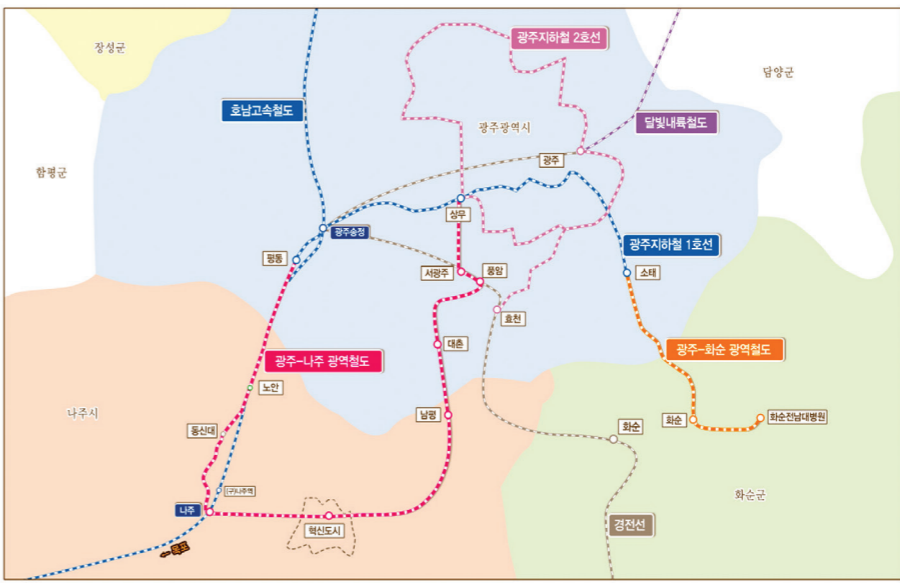
두 노선에 대한 지방비는 총 5675억원이며, 시·도 간 경계로 구분할 경우 전남이 3190억원, 광주가 2485억원이다.

이 지역들이 철도로 연결될 경우 나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화순전남대병원, 생물 의학 산업단지 등 이용객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자문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정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에서 수립 중인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광역철도 2개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화순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광주시, 시내버스 종사자 2800명 코로나19 선제 검사

오늘부터 3일간 10개 업체 운수종사자 시민 불안 해소·지역감염 확산 방지

광주시가 시내버스 10개 업체 운수종사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코로나19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중 하나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해당 기간 자치구 5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시청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고, 검사 비용은 무료다.

순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코로나19 특성상 무증상에서도 전파력이 높은 만큼 한 발 앞서 ‘조용한 전파’까지 미리 차단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선제검사로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감염 확산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석곡로 전선 걷어내고 말끔해진다

총 25억 규모 전선 지중화 확정

곡성군은 석곡면 석곡리가 한국전력공사의 전선지중화사업 최종 대상지로 확정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전선지중화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의 하나로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전선을 지중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곡성군의 사업대상 구간은 석곡초등학교에서 석곡5일시장까지 약 800m구간이다. 사업에는 총 25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한

전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군비로 각각 20%, 30%씩 부담한다. 곡성군은 2021년 상반기 한전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22년 1월경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전선지중화사업과 석곡면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석곡로 중심 시가지 도로를 전선주가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주민 편의는 물론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혜영 기자

‘오늘부터 눈·한파’ 전남도 종합대책 시행

간선도로·이면도로 650곳 제설함 비치...코로나19 입원시설 중점 관리 제설

30일부터 전남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전남도가 도로제설 등 대책을 마련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남동진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30일부터 전남지역은 강한 한파와 최고 20cm의 적설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설, 한파 등 기상상

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조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총 650개소의 제설함을 비치하고 제설 자재와 장비도 확보했다.

전남도와 각 시·군은 염화칼슘 4162t, 소금 5231t, 모래 1491m³, 친환경 제설제 3495t, 제설차량 1271대를 확보했으며, 필요시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또 고갯길 및 상습 결빙구간 등 제설 취약지구 134개 노선 245km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장성, 영광 등 상시 폭설지역은 제설장비 사전 배치를 마쳤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나 증상자 이송이 원활하도록 입원시설의 인근 도로를 중점 관리 구간에 포함시켜 제설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와 현장 사전점검 등에 나서 겨울철 제설에 미리 대비하고 있다”며 “도민 안전 확보와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폭설, 한파에 24시간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